

2015년 5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5.5.28(목) 15:00~16:00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정확성, 심층성 확보하고 균형 있게 보도해야

- 12일 '뉴스현장14' CNN 김정은 고모 김경희 독살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CNN의 보도내용에서는 한 탈북자와의 인터뷰일 뿐 사실여부는 확인 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그럼에도 연합뉴스TV에서 위와 같은 타이틀로 보도한다면 인터뷰 내용에 불과한 것을 시청자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단순히 이목을 집중시키는 타이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의미 전달에 있어서의 정확성을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할 것임(김연화 부위원장)
- 우리나라 정치 뉴스를 보면 사실에 입각한 보도와 평가가 부족해 보임. 상당수 정치 뉴스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채 기자의 단순한 추측이나 억측에 바탕을 두고 있음. 예를 들면, 29일 오전 8시 10분경의 재보궐 선거 결과 뉴스는 지나친 추측 기사였음. 6일 오전 8시경 총리 인선과 관련한 뉴스도 추측성 보도임(최현철 위원)
- 26일 '연합뉴스20' 백수오 파장 주류 업계까지...재배 농가 우려 여전 관련 내용에서 '백수오' 사태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산업을 비롯한 건강기능을 강조한 원료를 포함하여 광고하는 식품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김연화 부위원장)
- 27일 '뉴스리뷰' 한화의 마약 야구 기사에서 한화 이글스의 달라진 모습과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 소개했는데 야구의 신으로 불리는 김성근 감독의 야구 철학이 담긴 일구이무(一球二無)도 함께 소개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임(성낙용 위원)
- 25일 '뉴스17' 사는 게 힘들다 생활고 세 자매 스스로 목숨 끊어 기사에서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세 자매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단순 팩트 위주로 전했는데 지난해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에 이어 생활고 비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모두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빈곤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을 함께 제시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임(성낙용 위원)
- 27일 '공공기관 대규모 수술' 내용에서 공공기관들이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이런 분야를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보도라고 생각됨. 이날 보도내용이

공공기관 4곳을 통폐합하고 5,700명을 재배치한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전체 규모를 감안하면 매우 미미한 개선이라고 느껴짐. 고용유지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혈세낭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볼 일임(이용우 위원)

- 25일 '탄소배출권'이 뭐길래..제조업계 비명' 보도에서 제목처럼 탄소배출권 문제는 최근 기업들의 긴박한 현안가운데 하나이므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안임. 현재 세계 10대 탄소배출국가운데 독일과 우리나라만 전면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조차도 실시하고 있지 않음.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의 1%에 지나지 않는데, 감축목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3-8%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음. 따라서 과연 선진국문턱을 못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등 우리 경제를 끌고가는 주력산업에 최대 13조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과징금 기준)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탄소감축을 위해서 앞장을 서야하는지 의문임.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환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용우 위원)
- 18일 '평사원 신화 증권가 공채출신 CEO 새바람'이라는 보도를 통해 직장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CEO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 보도가 좋았음. 다만 증권가뿐만이 아닌 타분야에서의 일반 미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향을 파악해 보도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들었음(이용진 위원)
- 11일 120년 전 첫 법원...한성재판소의 모습은 내용에서 120년 전,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법원의 모습을 사진자료로 보여주고, 120년 동안 100배가량 성장한 변화된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준 보도가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음. 사법부가 소통컨퍼런스를 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노력을 전한 것은 정보제공차원에서 좋은 기획 보도로 평가함. 다만, 120년 전 최초 한성재판소의 사진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당시의 판결문은 어떠했고, 지금의 판결문과는 어떻게 다른지 등에 관하여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했다면 사법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가졌음(최진영 위원)
- 28일 '모닝Y'에서는 대통령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발언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국회가 여러 입법처리를 늦추는 바람에 여러 가지 경제계나 사회전체 현안을 해결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음. 이 기사는 입법기관입장외에 여야의 입장 등 다른 각도의 내용도 전달해야 그 기사의 보완이 되는 완전한 기사가 됨. 정부의 발표 내용만을 전달하는 기사 내용만 내보내는 부분은 지양해서 기사 전체가 균형을 이뤘으면 함(강대인 위원장)
-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등 보도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여 야의 상반된 주장만 보도하여 또 다른 사회적 이슈를 낳게 함. 여 야의 주장을 정확히 분석하여 논평 등을 통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도하여 합리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함(김용주 위원)

- 27일 '포스코 채권단 돈으로 계열사 살려라 논란 보도에서 포스코가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에 추가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포스코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은행권이 수천억 원의 손실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는데, 포스코의 입장은 배제하고 은행권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어 객관성의 우려가 제기됨. 용어선정에 있어서도, '떼를 쓴다', '거액손실을 떠넘긴다', '채권단에만 밀 빠진 독에 물 부으라고 강요한다' 등 다분히 감정을 이입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포스코의 경우에도 어차피 어떠한 조건이든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워크아웃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을 것임. 이 과정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언론에 각자의 입장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므로 각별히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 노력해야 할 것임(이용우 위원)

▲ 보도의 가치 및 주의사항, 뉴스 아이템 고민해야

- 최근 정치 뉴스의 특징 중 하나는 정치 사건이나 정치인을 지나치게 대통령 선거와 연결시켜 보도한다는 것임.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대통령 선거가 많이 남은 시점에서 자주 대통령 선거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최현철 위원)
- 27일 '뉴스포커스' 보건당국 관리 부실...메르스 3차 감염 우려 고조 내용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으며, 3차 전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에 비해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음. 실제로 의사협회에서도 '이번 메르스는 환자와 접촉 정도가 강한 사람에게만 전염됐다'며 지나친 걱정과 불안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음. 전 국민이 시청하는 뉴스로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워딩을 신중히 해야 할 것임(김연화 부위원장)
- 18일 '쿨 김성수, 재혼한 부인과 이혼소송'기사에서 기사내용과 관계없는 몇 년 전 사망한 첫 번째 부인 강모씨의 사망사건 내용을 보도 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음(김용주 위원)
- 23일 '의사협회 "메르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 없어' 보도에서 각종 재해나 사건,사고시 언론의 과도한 보도경쟁으로 인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에서 최근 메르스 관련보도의 빈도나 내용이 과도하지 않았나 한번쯤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 기왕 보도를 하더라도 의사협회 발표내용이나 메르스 예방을 위한 정보 등과 같이 국민들이 패닉을 겪지 않도록 돕는 내용을 많이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이용우 위원)
- 27일 '뉴스리뷰' 걸그룹 EXID를 스튜디오로 초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

자와 EXID 신곡 '아예' 위아래 골반댄스 소개 등 여러 가지 신변잡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락채널도 아닌 보도채널에서 프라임 시간대를 할애해 가수의 신변을 소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했음. 이날 총리 퇴임, 네팔대 지진, 대통령 병가 등 주요기사들이 많았음(성낙용 위원)

▲ 화면구성 및 표현, 자막오류 개선노력 필요

- 27일 '뉴스리뷰' 한화의 마약 야구, 장동민 삼풍백화점 생존자 비하... 피소, 어벤져스2 개봉 등 기사 소개시 진행자 뒤 배경화면이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화면이 혼란스러웠음. 어깨걸이 영상이 대형화 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간단한 어깨걸이 영상으로 처리했으면 화면이 더 깔끔했을 것임(성낙용 위원)
- 27일 '뉴스리뷰' 진행시 앵커 뒤 배경화면이 주조정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On-Air화면, 정지화면 몇 개, 오디오 레벨 외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움직임이 거의 없음. 대형 모니터 화면 등 밝은 배경을 선택하면 어떨까 함(성낙용 위원)
- 4일 '시사터치' 말미 날씨 예보시 화면 화단 굵은 자막띠가 없는데 화면 왼쪽 화단의 큐브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 화면이 조화롭지 못한 느낌이 있음. 가능하다면 날씨 예보시에는 화면 왼쪽 화단의 큐브와 시간을 화면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고려했으면 함(성낙용 위원)
- 이완구 전 총리와 고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과 관련한 의혹을 전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화면은 명백히 연출된 재연 화면임. 비타500박스에 돈을 넣어 건네는 연출된 화면을 아주 최근까지 사용하고 있음. 뉴스에서 기자가 직접 취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내는 연출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양승찬 위원)
- 스크롤 자막에서 사람의 이름과 기관명을 표기할 때 시청자입장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어디의 누구인지를 알려줘 시청자의 편의를 고려했으면 함(강대인 위원장)
- 4일 '시사터치' 선재규의 국제뉴스 전망대 코너에서 '아베 방미 성적평가, 미일 새로운 밀월 관계, 김정은 러 승전 기념식 불참 등' 과 관련하여 선재규 연합뉴스 국제국 기획위원의 이야기중 뉴스 속보로 대화의 내용 중 키워드를 자막으로 정리해 주었는데 이는 속보의 난발로 보였음. 시청자 입장에서는 속보에 대해 둔감해 질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였음. 일부 매체는 다른 매체와 차별화를 위해 속보라는 단어를 넘어 '긴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성낙용 위원)
- 6일 '뉴스리뷰1,2부'에서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불발 등 국회소식을 전했는데 뉴스리뷰 1부 종료 후 후CM시간과 2부 전CM시간에 화면하단에 뉴스속보로 붉은 바탕에 굵은 띠자막으로 '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도 본회의 처리 무산, 본회의 재개 불발' 등 자막을 광고 화면을 일부 덮어 오래 동안 송출되었는데 이런 자막 내용들이 광고시간에 광고주의 권익을 훼손

해 가면서 뉴스속보로 처리해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궁금했음(성낙용 위원)

- 17일 '전국 초여름 더위...주말마다 농부의 시장' 자막에서 기상전문기자의 날씨 보도만 있을 뿐 자막에 나오는 '농부의 시장' 관련 내용이나 화면이 없어 자막과 내용이 불일치함, 27일 대구 경북 사흘째 가마솥 폭염 기사에서 '살이 뜨거워요'자막은 뉴스의 자막으로는 선정적임(김용주 위원)

▲ 프로그램 편성 · 제작 의견

- 일요일 저녁 편성된 기업 비사 관련 다큐멘터리는 어떤 목적으로 편성 배치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함. 현대에 이어 SK를 다루었는데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여 편성한 것인지? 제작한지가 꽤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일부 내용은 기업 홍보성도 있어 보임(양승찬 위원)
- 11일 '지방시대'에서 춘천지역 한 시민단체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보도했음. '아파트 경비원, 일보다 민원이 더 스트레스'라는 내용으로 경비원들이 본연의 경비 업무가 아닌 층간소음문제, 택배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보도는 지방시대에서만 다룰 기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문제이기에 메인 뉴스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음(이용진 위원)
- 이슈 펀치와 같이 기자가 직접 참여하여 뉴스를 정리해 주는 코너가 조금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담당 영역의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나와서 이슈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취재 기자가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함. 최근 새로 섭외하여 등장하고 있는 패널을 볼 때 과연 특정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음(양승찬 위원)
- 뉴스에서 사건, 사고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연합뉴스TV의 뉴스를 전반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소재의 뉴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뉴스 아이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 전달했으면 좋겠음. 특히 우리 사회에서 묵묵히 자기 책임을 하고 있는 소시민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삶을 소개할 수 있는 뉴스를 많이 발견하여 전달해 주기를 부탁함(양승찬 위원)

▲ 출연자 관련 의견

- 패널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숙제가 주어지는 것 같음. 특정 아이템에 꼭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라면 모르지만 중복출연자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패널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강대인 위원장)
- 1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경 방영된 '재야고수 비정상회담'에서의 외국인 인터뷰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수준 이하였다고 판단됨.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언제 집에 다녀왔는지, 각자의 나라를 소개하고 자랑하라고 하는 등의 질문은 과연 뉴스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을 스튜디오에 불러 물어볼 내용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수준 있는 질문을 준비하고 프로그램 취지에 적합한 내용을 진행되기를 신경써주기를 부탁함(양승찬 위원)

- 심층적인 뉴스 보도를 위해,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단순 보도가 아닌 깊이 있는 뉴스 전달이라는 면에서 패널들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그러나 오히려 전문기자들이 참석해 심층보도를 해주는 것이 더욱 신뢰가 가는 것이 현실임. 최근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좋은 패널들도 나오고 있지만, 27일 '남현호의 뉴스포커스'에서 사회 사건사고를 정리해준다는 점에서 전문가 패널 2명이 나와서 '제일모직 창고 방화범', '취객 버스기사 폭행' 등에 관해 자세한 보도가 있었는데 과연 시청자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싶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음. 반면에 바로 이어서 노은지 기자(경제부)가 나와서 차분히 보도를 진행하는데 오히려 설득력과 연합뉴스 기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쌓였음(이용진 위원)

▲ 긍정적인 평가

- 최근에 연합뉴스TV 자체 기자의 출연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임. 25일 '뉴스15'에 내부 기자가 나와서 주가 변동폭 확대에 대한 경제 관련 기사를 다루는데 어떤 경제전문가 보다도 관점이 명확하고 전달하는 내용이 좋았음. 계속해서 내부인력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음(강대인 위원장)
- 25일 '미니다큐 오늘' 제77화 미운 일곱 살 동자승 되다 내용에서 석탄일을 맞아 동자승 체험행사 과정 보도는 삭막한 어른들에게 동심의 세계를 느끼게 하는 훈훈하고 아주 감명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음(김용주 위원)
- 네팔에서 재난을 취재하면서 기자가 직접 파견되어 드론을 띄우면서 현장의 생생한 영상을 전달한 노력은 좋았음. 재난 현장을 직접 취재하는 기자 정신은 높이 평가하지만 위험 지역을 취재할 때 기자의 안전도 늘 고려해 주면 좋겠음.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취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양승찬 위원)
- 22일 '풀무원에 의사들 불매운동 조짐' 보도에서 풀무원 것처럼 다양한 이해집단의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연유로 인해 기업 활동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어디에 하소연해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매우 바람직한 보도였음(이용우 위원)
- 25일 '뉴스 17'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폭염을 단순히 일기예보 형태로 보도하지 않고, 김동혁 기상전문기자가 직접 출연하여 당일 폭염에 대한 보도뿐만이 아니라 올여름 전반적인 기상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보도를 해줌으로써 시청자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신뢰도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보도로 생각되었음(이용진

위원)

- 기업비사 그때그선택 내용에서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국가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획의도고 뉴스보다는 다큐에 가까운 장르인데 기획의도가 좋다고 봄. 최근에 기술과학 분야에서 느끼는 것은 구글같은 경우 목표가 전 세계의 정보를 정리해서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게 제공한다는 선명한 기업목표를 갖고 있음 많은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구글을 애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의 패턴과 정보의 분석이 잘 되어있음.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선두라고 보고 이러한 접근과 국제적인 시장에서의 기업의 의미도 조명해주면 더욱 발전할 것 같음(이헌규 위원)
- 가정의 달에 부산경찰청이 진행하는 사랑한데이 이벤트는 훈훈한 감동을 주는 상당히 좋은 시도가 아니었나 함(이헌규 위원)
- 9일 '연중기획 하모니' 찬아네 가족의 희망일기 첫 번째 이야기에서 세종시 전 동면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담담한 목소리로 그려낸 것이 가슴을 울렸음. 22살 많은 남편을 둔 몽골 출신 아내의 고군분투가 눈길을 끌었고, 첫째 딸 찬아(9세)의 장애를 부부가 사랑으로 키워가는 모습이 눈물겨웠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문화 가정, 장애아를 둔 가정, 부부 나이차가 크게 나는 가정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찬아네 가족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담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풀어나간 기획이 돋보였으며. 두 번째 이야기가 기대됨(최진녕 위원)
- '남현호의 뉴스포커스' 프로그램에 관하여 남현호 앵커가 기자생활에서 돌아와 뉴스포커스를 맡은 것은 연합뉴스 전체 시청률이나 진행의 신뢰성 등 여러 관점에서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됨. 그동안 연합뉴스TV의 간판 앵커 역할을 했던 남현호 앵커가 돌아옴으로써 좀 더 믿을 만한 뉴스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함(최진녕 위원)

. (끝)